

연 중 제 12 주 일

기 도 서 P. 371 C해

- 1 독 (자 카 12장10-11절)
- 2 독 (갈 라 3 장26-29절)
- 복 음 (루 까 9 장18-24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정 승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본당과 교구의 운영 난에 즈음한 특별 메시지

김 재 덕 주교

친애하는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자 여러분!

오늘날 날로 더욱 심해져만 가는 불경기 속에서 고달픈 매일의 육신생활을, 특히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는데 얼마나든 고생이 많으십니까? 거기에다 또한 우리 신자들은 본당과 교구의 살림살이에까지 마음을 써야하는, 실로 2중 3중의 부담을 져야하니, 더욱 얼마나 그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마저 바쳐야 할 목자로서, 맞갖은 위로와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걱정과 부담을 더하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보내야만 하니, 실로 마음 아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목자로서 마땅히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나아가서는 양들의 보다 생활한 신앙유지를 위하여,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감을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실감하는 바이니 보다 밝은 내일의 교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주실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문제의 중대성이라 함은 오늘의 극심한 불경기과 더불어, 우리 교구는 지금 극도의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무금 수납실적의 전례없는 부진'으로 교구청은 물론, 각 본당과 제단체들이 모든 사무활동을 중지해야만 할뿐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 지출마저 불가능하게 될 급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로 교구가 당면한 사활문제라 하겠으니, 사무활동이 마비되어 가는 교회는 이미 죽어가는 교회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자치교구임을 자부하는 오늘의 우리 전주교구의 비참한 현실은 비단 교구내의 문제일뿐 아니라,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늘 우리를 지켜보는 로마성청과 특히 한국의 모든 교구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분연히 일어납시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헤치고서라도 우리는 이 절박한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합시다.

우리는 피를 흘려 이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 교회로 세운 순교선열들의 후손입니다. 피로써 세운 교회를 우리는 적어도 땀이라도 흘려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교정신을 발휘하고, 자치교구민으로서의 긍지를 되찾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최선의 힘과 지혜를 다하여 문제해결에 비상한 대책을 강구합시다. 그리고 마련된 대책은 지금 곧 실천에 옮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해」를 「보다 더 행동하는 믿음의 해」로 아름답게 장식합시다.

1977년 6월 16일



내일을 산다.

“예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 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서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아무것도 잠수하지 않아서 사십 일이 지났을 때에는 몸이 허기지셨다.” (루가 4,1-2)

3·1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서대문 교도소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작년 숲정이에 실린 적이 있었다. 그분들이 이제는 서로 흩어져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육고를 치르고 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몇분이 단식을 또 했었다 한다.

6일간의 단식을 했던 토마스 김대중씨(전주 교도소 수감중)에게 김 수환 추기경이 보낸 편지의 한 귀결과, 23일간 단식했던 문익환 목사(전주 교도소 수감중)의 시를 소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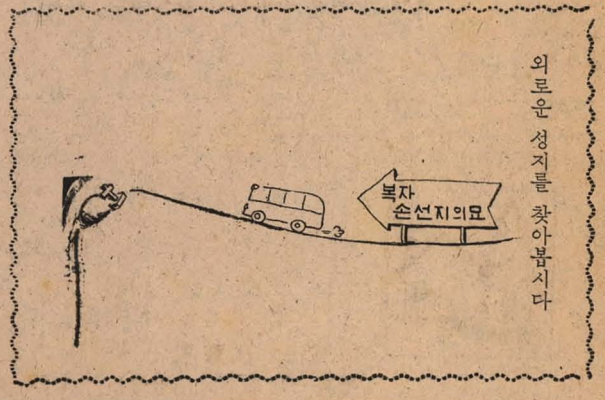
-지금 동이 터온다고 말씀드릴 수 없아오나 어둠이 깊어지면 날은 밝아오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선생님과 선생님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나라와 겨레 위에 은총과 빛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시
나는 죽는다.
나는 이 겨레의 허기진 역사에 묻혀야 한다.
두 동강난 이 땅에 묻히기 전에
나의 스승은 죽어서 산다고 그러셨지
아!
그 말만 생각하자.
그 말만 믿자. 그리고
동주와 같이 별을 노래하면서,
이 밤에도
죽음을 살자.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 들었다”(마태오 4,11).

숲 정 이 산책



□ 감 론 □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김 동 준 신부

성서의 계시에서 하느님은 사랑으로 나타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느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표현인 인간 예수는 사랑의 본질을 당시 생명으로 설명하셨다. - 방법과 과정과 결과를 말이다. 시간 안에 존재하는 만물은 시간 안에서 소멸된다. 한가지만은 예외다. 사랑만이 영원하신 하느님과 접촉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인간은 하느님과 닮았다”(창세기 1.26)고 성서가 가르키는 전 자유와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때문이다. 무상의 축복이다. 사랑의 반댓말이 무관심이라면 만남과 나눔을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로 오신 그리스도는 사랑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추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자이다”(살라디아 3.26).

오늘 복음에서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물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의에 차서서 물으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 “하느님의 메세야 일이다.” 이 베드로의 응답은 옳은 대답이긴 해도 입술의 고백에 지나지 않았다. 베드로는 예수의 인간적인 매력과 초자연적 능력을 믿고 의연히 따라 나섰지만 다분히 현실적으로 계산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베드로에게 예수는 악제사리에 불과하다. 예수는 잘못 인식된 자신의 모습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합구령을 내리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21절)고

그리스도는 이어서 자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다. 까닭은 자신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이유에서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계산은 이제 끝장이다. 훗날에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배신은 어렵지 않게 된 것이다. 닭 쫓던 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뜻난 위인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신 까닭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로부터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요한 21,17) 하는 3번 반복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지난날 3번의 배신을 회복시킨 다음의 일이다. 그리스도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를 일컫는 말이다. - 베드로처럼 - 내 신앙생활이 활기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내 신앙고백에는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은 결코 나의 부속물일 수는 없다. 필요에 따라서 내 갈증만을 채워주어야 하는 “병마개의 하느님”으로 알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는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오늘 복음의 핵심이다.
(두주 천주교회 주일신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김 영 구 신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마태오 5, 10-12).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 일이 왜 행복합니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진리요, 또한 사실입니다. 의인이 왜 핍박(逼迫)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는 「옳은 일」이 많은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덟가지 축복을 받는 이는 너무나 희귀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필요로 하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추악함이 들어나게 되니, 추악함이 빛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바리아 산에는 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흠없는 예수께서 못박히셨습니다. 이 사실은 마치 오늘의 현상과도 같습니다. 의로운 예수께서 불의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심은 선지자와 추악한 죄인이 함께 감옥에 들어가는 현세를 보여주시십니다.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자와 살인강도 같이 감옥에서 썩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 사람은 너무나 의로워서, 다른 사람은 너무나 악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현세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가지로 핍박을 받을 줄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마태오 16, 24-26)고

박해를 받는 일은 왜 행복합니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예수께서는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고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가모스, 이사야 예언자의 생활을 잠깐 회고해 보면 넉넉히 짐작할만 합니다. 그분들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가 권력층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옳게 살려면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때 우리는 예언자의 후예가 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설계·감리·허가 수속 □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최조속!!!



신원 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새로나왔다! 삼화은수 보일러 ☆

- ☆특징 - 주물로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함
- 열전 100% 효율, 99% A.L인코트
-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북 총 판매점

부 활 상 회

대표 주원철(야고버)

□ 각 시군대리점 구할(각 가정에도 저렴한으로 직접 시공)

□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교구의 어려움,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약칭 敎區平協, 회장 曹成浩)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교구의 어려운 재정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모든 본당은 교구비의 잔액을 9월말까지 월별 균등 분납한다.」

교구청은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가 금년 5월 31일로 8개월이 지났는데도 각 본당에서 들어와야 될 교구비가 겨우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다. 회계연도의 4분의 3 (75%)이 지났는데도 교구비 수입이 40%라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것이 아닐까?

참고로 각 본당의 교구금 실적을 소개해 본다. -고창(66%), 김제(30), 부안(16), 수류(58), 신례인(26), 정읍(78), 대야(75), 둔용동(37), 용안(41), 월명동(26), 팔마(81), 합열(0.5), 화산(100), 고산(45), 삼례(10), 여산(43), 주현동(35), 장인동(32) 활동(76), 노송송(37), 덕진(36), 복자(47), 서학동(23), 순정이(0), 전동(40), 중앙(76), 금산(36), 남원(9), 무주(67), 상판(80), 순창(68), 임실(79), 장계(16), 진안(73),

사실 한국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수출의 날 실적으로 보아 12년 동안에 66배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했다. 곳곳에는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의 희망찬 80년대를 구가하는 크나큰 활세들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작년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된 내용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액이 1962년도에 비해 54배가량이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도매 물가 지수를 연 10%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금년도 보선에서 후보자 1인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8백만원 가까이 정해놓은 것을 보면 5년전에 비해 3배가 가까운 물가상승이다. 부가가치세 하며 좌우지간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고, 본당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렵다면 모두가 다 어려울텐데 교구비를 제대로 낸 본당은 어떤 일일까? 어떤 회장이 특별헌금에 얽힌 재미있고 심각한 의견을 발표했다. 1년이면 공식적으로 내는 특별헌금이 8종이 있다. 그러다보니 본당 예산의 큰 몫을 차지하는 주일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특별헌금을 걷는 주일에는 헌금을 두 번 걷게 되고, 또는 한 번 걷는 헌금에서 일부를 본당 수입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런 일은 특별헌금을 걷는 본 뜻에도 어긋나고, 그렇다고 교회 운영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아니었다는 경험상의 고백이다. -「낼 것 제대로 안배니까 더 안되더라. 본당은 더 큰 수렁에서 헤어나 지를 못하더라.」

결국, 각 본당도 어렵지만, 교구의 고충을 생각해서 금년도 회계연도말인 9월 30일까지는 모든 본당이 한 마음으로 그간의 잔액을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의 네 번에 걸쳐 균등하게 분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어떤 회장님은 이러한 고충을 “본당 신부님들도 함께 이해하고 행동을 같이 하자”는 여운이 담긴 의견을 제시했다. 내 가정, 우리 본당, 우리 교구, 우리 나라에 대한 것들은 ‘내 일’이라는 같은 차원에서 걱정해 주고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닐까?

요심이 (203) 김병오

문신부님, 수술한 무릎이 몹시 시려서 고생한대지요? 그래



이 모래가 식기전에 빨리 신부님께 전해주세요



웬 미친놈이 이런것을...



뜨거운 모래찜을 하나 무릎이다 나온것같다!



이신경외과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대구절)

전화 ㉠-9793

원장 이종두(헨리프)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광사

(구 태양사)

유명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많이 찾아 주세요

삼성전자 군산판매장

대표 심가타리나

군산시 중앙로 2가 89-1 ☎ 5000번

천주교회 육구

군청 화진약국

←역 ↑ 경찰서→

신혼예식장

삼심전자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소아과) 앞

원장 김현(아오스딩)

전화 ㉠ 1668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계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문

(전화 ㉠ 4577)

* 많이 찾아 주세요 *

군산梨花치과 의원

박안드레아(찬운)

☎ 8711 (천일약국2층)

천일약국 2층

조화당

전화국

국도국장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오늘은 침묵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 침묵의 교회, 특히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사회 정의를 위한 미사 (21일 <화> 오후 8시, 복자성당)
지난 4월 교구 사제 총회에서 결의된대로 매월 1회씩 본당을 순회하여 봉헌하는 정의 평화 미사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서울에서는 20일 <월> 오후 6시 明洞성당에서 全國 규모의 미사가 있음
 3. 전주 교구 사제단, 호남지구 가톨릭 성직자 친목 체육대회에서 우승
정구 (5:2勝), 배구 (2:1勝), 농구 (30:44敗), 축구 (4:1勝), 총점 전주교구 770점, 광주대교구 486점
 4.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제 2차 본당 순회 방문
25일 (토)...주현동 (2시), 창인동 (4시), 진안 (1시 반), 장계 (3시),
26일 (일)...대야 (11시), 문음동 (1시 반), 팔마 (2시 40분), 월명동 (4시), 무주 (10시), 금산 (3시)
- ☐ 양 재철 신부님 주소 (300-00, 대전시 유천동 107 군중 사제관)
☐ 금주의 방송안내 ① 문화방송...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한 봉섭 신부 방송
② 서해방송...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김 동준 신부 방송
③ 순정이를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1-50, 98, 113, 135, 182-184, 192, 193, 198, 199, 211호가 좀 모자라는군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7.3 일광주인신부 영명주인

(중앙) 전화 ③651 3651 주임 신부 서 우 록
3874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성모회 월례회: 10시 공식미사 후, 강당
 2. 삼지회 임원선출: 회장-김정생, 부회장-임주택
장용근, 총무-김영춘, 재무-김옥기
 3. 교리교사 독상회: 20일 <월> 밤 8시 반부터 21일 <화>
오후 7시까지
 4. 교무금 납부하여 교회운명을 돕습니다
 5. 마사참례때 성경, 기도서, 성가책을 지참하십니까?
- ☐ 지난주 봉헌금: 116,270원

(노송동) 전화 ⑦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박 종 용

1. 성모회 임시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꼭 참석하세요
2.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남녀 청년들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형제회 청년들 제외)
4. 공소방문: 오늘 오후, 본당 신부님, 사도회장, 재경
부장님께서 본당 산하 5개공소 방문하십니다.
5. 정의와 평화를 위한 미사: 21일 <화> 밤 8시, 복자성
당에서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이날 본당 저녁미사는 없음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금주부터 미사시간 변경: 공식미사-9시 반, 저녁미
사-매일 8시, <월> 어머니미사-9시 반
 2. 교우님들 주일미사 전 성가연습, 성사 보세요
 3. 가정방문: 봉사부, 부녀부 ※ 교우님들 협조 바랍니다
 4. 심임 교리교사들 <조찬님 (아베스), 임의경 (프란체스
카)> 수고하시겠습니다
 5. 할머니, 성모회 회합: 미사 후
 6. 지난주 제대 꽃 봉헌 감사합니다: 금양동 최일림 (혜
레나)
- ☐ 새 성당 비품 심임 감사합니다: 감실-홍대례사, 익
명, 강릉대-익명, 제대 뒤 십자가-장소피아, 성세
대-성복회일동, 주수상-이원오, 윤홍덕, 축일용
파이텍스-익명, 내부 성모상-익명, 성수대-박가
다, 신중식, 거양성체중-이강욱, 장대례사, 김효순
김빛다, 강모니카, ※ 신축현금 총액: 7,047,000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 종 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심입하신 교무금 속히 완납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미납되신 가정 방문있으니 준비 바랍니다
2. 제 4지구 학생회 체육대회: 다음주일, 해성학교에서
3. 다음 주일 (26일)은 교황주일: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현금 준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42,655원, 일주일간 받은 은혜에 감
사드리고 앞으로의 일주일간도 많은 은총 내리시도
록 빌면서 정성껏 봉헌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76 주임 신부 오 현 태
사도 회장 박 장 춘

1. 행복한 가정운동 교육: 부녀주일 미사 후
 2. 반상회: 9반-21일, 10반-22일, 11반-23일,
12반-24일
 3. 제 4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26일, 해성 중 고에서
- ☐ 지난주 봉헌금: 31,620원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주님께 약속드린 의무금 미수분을 속히 바칩시다
 2. 누갈다 부녀회의 소비조합을 애용해 주세요
 3. 애령회에 전교우님들 꼭 가입하세요
- ☐ 지난주 봉헌금: 73,85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함 철
보좌 신부 김 윤 석
사도 회장 유 석 중

1. 꼬미씨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 반
 2. 자모회: 10시 미사 후
 3. 장우회 3일기도: 새벽 5시 반 미사후, 효자동
북주기도
 4. 새성당 기금 위한 자선판매 (음료수): 성가정회
 5. 푸른 군단 입회증, 견진사진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6. 묵주기도 10만번중 95,898번
- ☐ 지난주 봉헌금: 117,479원

☐ 새성당 신축현금: 전동-김비리사(5만), 시보당,
푸른사진관(각 10만), 김인찬(20만), 익명(50만)/교
동-동신원(1만), 윤모테스타(반지 3돈), 범희갑, 변
항진(각 2만), 이길섭, 소영준(각 5만), 유대글라, 금
옥당(각 10만), 익명(20만)/ 동양산-체제노베파,
김말구(반지 3돈), 김세시리아(반지 1돈), 최만일,
백삼택, 조정희(각 1만), 권형자(3만)/ 서완산-이
세시리아(목걸이 3돈), 이안나(반지 3돈), 유창수
(1만), 송모니카, 유종소(각 2만), 김명배(3만 5천)
탁마리아, 황로마노, 전창현(각 5만), 이동주, 김
윤무(각 10만), /남송동-이루시아(목걸이 3돈),
문대례사(부릇지 2돈), 양나차로(1만5천)/ 기타-이
마리아(3만), 익명(5만), 배수산나(10만), 익명, 두
현리공소(각 20만), 정세시리아(목걸이 2돈)
주제: 272만원, 금품: 24돈
누계: 22,047,500원, 금품: 99돈